

# 海洋科學과 우리의課題

<目 次>

1. 海洋研究의 必要性
2. 海洋資源開發의 價值
3. 海洋科學技術의 育成方向
4. 當面諸問題

## 1. 海洋研究의 必要性

바다는 우리들의 主要한 高速道路요 모든 陸地의 自然境界를 形成하며 廣大한 自然에너지의 根源이 되고 있다. 또 大氣圈과 함께 日氣와 氣候를 支配하며 모든 有機·無機化合物을 混合하고 있는 天然의 溶液인 것이다. 地球表面의 70% 以上을 차지하는 바다속에는 陸地와 마찬가지로 資源이 풍부하게 賦存하고 있다.

우리에게 周邊海域은 國土防衛의 一線이며 未開拓資源의 寶庫요 國土擴張의 對象이며 生活舞臺이 一部인 것이다. 이와같이 海洋이 여러가지로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 寄與度가 減增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 海洋研究의 必要性을 再三強調하는 意味에서 說明해보고자 한다.

우선 國家의 至上課題인 安保面에서 어떻게 必要한가? 海上防衛를 위해 周邊海域의 特性을 잘 把握해야 하는 것은 當然한 理致이다. 어디에暗礁가 있어 航海에 支障을 받는다면지 어디로 海底谷이 形成되어 잠수함의 通路가 될 수 있다면지 어디는 海·潮流가 빨라 通行이 어렵다면지 하는 것은 基本要件이겠다. 一般的 海洋調查研究의 內容이 되고있는 海底地形, 海底地質, 海水流動現象 및 水溫分布等은 곧 防衛目的의 情報가 되는 것이다. 일찌기 忠武公은 울돌목의 潮流를 海戰에 잘 活用하였으며 一次大戰中 獨逸海軍은 지브랄타海峽의 빠른 底流를 미리把握하고 活用하여 잠수함을 運航하였다는 것은 좋은 보기인 것이다. 우리나라 西南海岸은 海岸·海底地形이 複雜하고 潮汐現象이 두드러져 海洋學의特性을 把握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군



海洋開發研究所  
李秉馭所長

다나 모든 海洋現象은 時間에 따라 變하고 特우리나라 周邊海域은 甚한 秀節變化를 갖는다點에서 더욱 많이 調查되고 研究되어야 할 것이다. 現代海戰에서 잠수함과 機雷의 役割이 크고 한다면 海底地形과 物理的現象의 把握은 더緊要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海洋資源을 效果的으로 開發하기 위海洋研究가 必要하다는 것이다. 海草와 물고기를 비롯하여 潮力 波力等 에너지資源, 海底石 및 鎳物資源, 內灣淺海等의 海岸環境資源과 같各種資源이 開發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洋研究는 必要하다. 漁業의 發展은 漁場의 調研究없이 不可能하며 沿近海養殖業도 海洋科學的研究의 바탕없이는 그 效果를 期待할 수 없 것이다. 陸地에 存在하는 거의 모든 資源이洋에도 存在하지만 陸地에서처럼 쉽게 開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現在 海洋에서 水資源과 石油 및 一部鎳物資源이 經濟的으로 產되고 있으나 나머지 大部分의 海洋資源은 濟性때문에 아직 開發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經濟性이란 有動의이며 앞으로 언海洋資源의 經濟性이 커질지 모르는 것이고洋科學技術의 꾸준한 發展없이는 海洋資源을 發할 수 없는 것이다. 아직 陸上資源으로 실갈 수 있을때 海洋資源開發能力을 갖추어 놓다는 것은 必要하지 않은가?

끝으로 海洋研究의 必要性은 國際協力面에서 強調되어야 한다. 어느 科學分野보다 國際協力活動이 活潑하고 國際協力없이는 不可能한 境遇도 많으므로 IOC와 같은 國際機構가 오래전에 發足되어 世界各國이 參與하고 있는 것이다. 我們의 周邊海域을 우리가 調查研究하지 못하고 外國의 專門家들이 調査研究하여 그 結果로 韓國海域을 說明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海洋科學技術의 發達程度만큼 國際海域에 영향력이行使된다는 것도 重要하고 國際海作調查業에 參與하여 國家地位를 유지하는 것도 重要하다.

現在 國家實情上 國防과 產業經濟開發에 重要성이 集中되어 海洋研究에 投資할 餘力이 적다  
나지도 三面海洋을 全혀 調査研究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2. 海洋資源開發의 價值

海洋資源이라고하면 앞서도 말한바와 같이 단질 供給源으로서의 水產資源, 海水中에 녹아거나 海底에 매장된 鎌物資源, 潮力 波力等의 너지資源 및 產業立地나 觀光休養地로서의 海環境資源等을 손꼽을 수 있겠다. 이들 資源開의 價值라함은 產業經濟의 面에서 資源를 保한다는 點과 國民精神生活面에서 좀더 快適生活環境을 造成한다는 點이 함께 內包되고는 것이다.

아직도 海洋資源이 活潑히 開發되고 있지 못하는 段階이고 다만 水產資源과 海底石油資源만 世界產業에 比較的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지 陸上資源難이 심각해짐에 따라 차차 바다로부터 우리들의 많은 難題를 解決하고자 期待할 것으로 여기서 海洋資源開發의 價值를 未來指向된 面에서 몇가지 例示해보고자 한다.

둘째로 水產資源을 생각해보면 오랜 人類歷史 통해 重要한 食糧供給源의 役割을 해왔고 지 世界到處에서 數億의 人口가 飢餓에 허덕이 있음을 생각할때 食糧資源의 確保는 世界的

으로 時急한 問題라 하겠다. 特히 水產資源의 重要性은 農業食糧生產高가 거의 限界點에 到達하여 人口增加만큼 그 增產을 期待할 수 없는 反面 世界漁獲高는 1950年以來 지금까지 年間 6% 정도의 成長을 나타내는데 있다. 또 既存水產物外에 新種의 劃期的인 水產資源이 調査研究되고 있어 人類의 食糧難이 어쩌면 바다로부터 無難히 解決될 展望이다. 이런 新種水產資源으로 未久한 將來에 크게 脚光을 받을 것 같은 것으로 南極海의 크릴(krill)과 캘리포니아產 켈프(kelp)等이 있다. 이밖에도 漁獲高를 增大시키기 위해서 現在 約 500~600m까지 漁撈作業을 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2000m정도 水深까지 내려가 操業하는 漁獲方法이 研究開發되고 있다. 한마디로 過去 約 20年동안 水產資源의 生產增加率은 農業生產增加率이나 人口增加率을 능가해 왔으며 앞으로 20년은 이런 傾向이 유지될 展望이다. 海洋科學技術의 發達은 海洋을 새롭게 認識시켜 주며 水產資源生產量을 높이고 그 利用範圍를 넓히는 데 실로 크게 공헌하게 되었다. 水產資源이 食糧으로서의 重要한 役割을 하고 그 增產勞力이 多角的으로 備注되고 있는 만큼 食糧不足이라는 人類의 一次的 難題는 바다로 부터 解決되고 充足될 것이다.

둘째로 海洋鎌物資源은 어느 정도의 開發價值를 갖고 있겠는가? 海洋으로부터 現在 經濟의 으로 얻어낼 수 있는 鎌物資源은 크게 두種類로 나눌수 있다. 하나는 炭化水素鎌物인 石油와 天然가스이고 다른 하나는 非炭化水素鎌物들이다. 非炭化水素鎌物은 現在 10餘種이 商業的으로 開發되고 있으나 世界의 一部地域에서 소규모적으로 產出되고 있는 것이다. 거의 大部分의 鎌物들이 海水中에 녹아있고 또 海底에 埋莊되어있지만 經濟的打算이 맞지 않아 抽出開發되지 못하는 것이다. 海洋科學技術開發의 目的是 이 經濟的打算을 맞추도록 勞力하는데도 있고 陸上資源枯渴로 인해 打算이 自然히 맞게되는 時期를 對備함에도 있다. 海底石油資源開發은 1920年 베네주엘라의 Maracaibo湖에서 陸域의 延長으로試掘된 이래 現在 世界 135個國이 크게 關心을

가지고 있고 이중 110個國의 沿近海에서 作業이 實施中이며 40個國이 이미 海底石油를 生產하고 있다. 앞으로 海底石油開發은 더욱 서둘러 질것이며 1980年까지는 世界石油生產量의 1/3정도가 바다에서 生產될 展望이다. 石油나 天然ガス 외에도 海底에서 石炭, 砂, 砂利, 砂錫, 砂鐵, 다이아몬드, 石灰砂, 貝殼, 燐礦石, 銳金團塊, 重金屬泥 等이 開發될 수 있으며 특히 銳金團塊는 太平洋이나 印度洋의 4000~6000m深海底에 거의 무진장으로 賦存되어 各先進國은 關聯技術開發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는 現在 海底石油資源開發이 要求되고 있고 其他礦物資源의 探查와 開發에 必要한 諸般技術도 조금씩 發展시켜 나가야 겠다.

셋째로 潮力, 波力, 海水溫度差等은 곧 發展으로 연결되는 主要한 海洋에너지의 資源으로서 우리나라도 여러가지 好條件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특히 西海岸은 潮差가 크고 리아스海岸이라 많은 內灣이 形成되어 있어 潮力開發에有利한 與件이 되고 있으며 公害없이 內灣地域을 綜合開發하고 인접 都市產業發達을 育成할 수 있는 多目的效果를 期待할 수 있다. 또 波力發展은 波濤의 힘을 利用하여 沿岸僻地나 島嶼地方의 블을 幫助할 수 있는 것으로 現在 效果的인 發展裝置를 開發하기 위해 日本等에서 많은 研究가 進行되고 있으며 앞으로 大容量의 發展도 期待되는 것이다. 海洋에너지資源의 開發은 地理的 立地條件과 臨海產業施設과의 關聯性를 고려하여 開發價值가 充分히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海洋環境資源은 우선 海岸이 產業立地로서, 休養觀光地로서, 港灣交通의 適地로서 多目的으로 利用되며 海洋도 海上都市나 人工島에 의한 空港等으로 活用될 수 있다. 日本의 長崎空港은 바다위에 建設된 것으로 空間不足을 느끼는 現代의 突突破口의 하나로 海洋空間이 活用될 수 있음을 立證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沿岸은 陸水와 海水가 混合되어 많은 魚種의 適合한 서식지가 되고 있으며, 특히 오즈음 養殖漁業이 变창하고 있어 큰 수확을 얻고 있다. 그러나 臨海

工業團地의 急速한 建設과 이에 따른 海洋污染은 多目的으로 永久히 活用되어야 할 海岸環境의 保全을 서둘러야 한다는 切實한 必要性을 世界곳곳에서 強調해 주고 있는 바이다.

美國과 蘇聯이 過去 수십년동안 宇宙開發에莫大한 投資를 했던 것은 달에서 金을 캐오려한때문은 아니었다. 그들은 한줌의 먼지와 月石을 가져오긴 했지만 欲나가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宇宙開發計劃이 無用의 장난이었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듯이 海洋研究도 有形無形의 欲어치를 創造해 나갈 것이다.

### 3. 海洋科學技術의 育成方向

海洋科學技術이라하면 新野인 것이라 漁業이나 海運業을 제외하고는 바다에서 별로 일거리가 없었다. 바다밑을 掘削할 必要도 없었고 海底에 파이프·라인을 裝置할 必要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 바다가 조용했던 時節은 다지나가고 世界 곳곳의 海域에는 구멍이 뚫리고 鋼鐵파이프로 積하고 積하게 되었다. 干拓事業으로 內灣에 뱃을 建設하게되고 새로운 港灣施設도 해야하고 7礦區에서는 石油가 埋藏되었는지 試鉆도 해봐야 할 段階에까지 이른 것이다. 外國技術에 잠시는 依存해도 좋겠지만 可能한 한 國內技術을 發展시켜 普及해야겠다. 앞서도 말했듯이 海洋科學技術이 新野인만큼 政治的配慮가 있어야 育成될 수 있는 것이다. 海洋科學技術이 어떻게 育成되어야 하는지 몇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보기로 한다.

우선 專門의인 研究 教育機關이 있어야한다. 海洋物理, 海洋化學, 海洋生物, 海洋地質, 海洋工學은 어느 하나가 獨立의으로 發展할 수 없는 것이며 서로 緊密한 協調下에 綜合的으로 發展育成되어야 하는 바이다. 魚族의 回遊를 海流現象의 把握ability를 調査研究할 수 없는 것처럼 水文海洋部門은 어디서, 海洋地質은 어디서 각各發展을 도모한다면 非能率의in面이 많을 것이다. 지금까지 海洋學을 제대로 教育하거나 研究하-

에 未治한 點이 있었지만 앞으로 더욱 未治해지는 方向으로 나가지 않을까 두려운 것이다. 學問과 技術開發의 成果는 그렇게 빨리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計劃段階부터 손에 잡히는 바를 要求하거나 非科學技術의 으로速決하는 處事が 없이 海洋科學技術의 研究開發되기 를 바랄 뿐이다.

다음으로 專門機關이 있으면 이를 中心으로 專門가 모이고 養成되어야 한다. 그리고 專門가들의 意見은 廣範圍하게 活用되어야 하며 研究開發業務에 精進할 수 있는 分위기를 保障해야 한다. 專門가들이란 誘致하기도 어렵고 새로 養成하기도 어렵고 그들이 效果的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다. 過去 海洋學이 觀察記載에 力點을 두었다면 오늘날은 理論의 展開와 確認에 重點을 두고 海洋을 꼭넓게 利用하거나 努力하는 것이다. 即 專門가들의 思考와 判断이 더욱 重要視되어야 할 段階인 것이다.

以上的 客觀的 與件이 갖추어진 다음 國家의 要求되는 研究開發事業이 進行되어야 한다. 1. 南海의 沿岸은 栽培漁業의 適地로 臨海產業發達되고 있는 地域이 많으므로 海底地形을 良한 海洋學의 基礎調查가 크게 要求되는 바이. 2. 干拓事業도 有希望한 곳이며 潮力資源도 中部海岸이 開發의 適地로 대두되고 있어 比較的 密한 海洋環境圖가 作成될 必要가 있다. 우선 潛帶를 中心으로 한 深海의 地形, 地質, 生物分布等을 把握한다는 것은 國土開發이라는 視點에서도 緊要한 資料인 것이다. 그밖에 港灣埋沒象이나 海洋污染問題도 重要한 當面課題이며 存海洋資料의 分析·整理도 꼭 必要한 事業인 것이다.

이와같이 多面的效果를 期待할 수 있고 重要當面課題가 積積된 海洋研究開發業務는 持續으로 推進되어 나가야 될 줄 안다.

#### 4. 當面 諸問題

지금까지 거듭 強調한 얘기들이지만 海洋研究

機關이 國家의 으로 投資되어 運用되어야 하고 그 業務가 長期의 으로 連合 없이 遂行되어 나가야 한다. 어떤 研究所도 마찬가지 이겠지만 海洋關係研究所는 國際의 으로 緊密한 紐帶를 外國機關과 맺고 있음으로 安定性과 自律性이 國際的威信을 결고 保障되어야 한다. 大은 豫算이 投資되는 못하더라도 國家의 海洋科學技術의 研究開發機關이 育成되어야 함는 國際潮流에도 符合되는 일이며 充分한 期待效果가 있는 것이다.

다음은 專門가들을 集積養成하는 것이다. 이제 바야흐로 外國에서 海洋學을 배우고 母國에 돌아와 奉仕하고자하는 바람직한 青年科學者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고 또 韓國海洋開發研究所가 프랑스 CNEXO(國立海洋開發研究所)와 協力으로 수십명의 科學者를 數年동안에 걸쳐 養成中에 있으므로 專門가確保가 어느정도 큰 可能하게 된 것이다. 專門가들이 한곳에 集積되어 있으면 어느 땐가 國家를 위해 큰 힘이 되는 바고무인적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다음으로 海洋科學技術分野에는 政策的 設立이 있어야 한다. 海洋開發이란 위낙 방대하고 長期的인 性格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個人이나 營利法人도 海洋開發로 經濟的富를 追求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돈을 쓰기만하는 일이라도 해야 할 일이 있듯이 먼 將來를 위해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效果를 위해서 海洋은 研究되고 開發되어야 하며 그런 點에서 政策의 配慮가 必要하고 國際聯合이 또 海洋探查와 研究를 廉價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海洋關係機關들이 協力하여 海洋科學技術을 發展育成하고 基礎調查研究事業이 必要한 分野의 일을 專門機關에 의뢰하여 研究結果를 바탕으로 妥當性 있는 事業을遂行해야 할 것이다. 그냥 밀고 나가면 된다거나 常識의 으로 判斷하여 큰 國家事業을 경솔히 追進할 수는 없는 일이며 合理的으로 諸般問題가 解決되도록 우리를 하나하나의 期待를 充足시켜 나가야 하겠다. 工場建設로 因한 汚染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다시工場을 뜯어야 하는 난센스는 事前에 防止되어야 할 태니까 말이다.